

김혜성, LA다저스 최대 324억 입단 합의

3년 1250만 달러 보장... MVP 오타니와 한솔밥 마이너리그 거부권 없어 생존 경쟁 '치열' 예상

야구 국가대표 내야수 김혜성(25)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디펜딩 챔피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김혜성 소속사인 CAA 관계자는 4일(한국시간) 김혜성이 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달러(약 324억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장 계약은 3년 총액 1250만달러(약 184억원)이며, 이후 2년 계약을 연장하는 옵션이 포함돼 있다.

CAA 측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서는 5년 2800만달러를 제시했고, 이외에 시애틀 매리너스, 시카고 컵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도 제의했으나 다저스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CAA에 따르면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계약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성은 다음달 시작될 스프링 캠프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겨내야 진짜 빅리거가 될 수 있다. AP통신과 MLB닷컴 등 미국 매

체에서도 김혜성의 계약을 확인했다. MLB닷컴은 "다저스 구단은 아직 계약을 확정하지 않았고, MLB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성은 2017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해 8시즌 통산 953경기에 출전,타율 0.304에 안타 143개, 37홈런, 211도루를 남겼다.

2024시즌에는 타율 0.326, 11홈런, 75타점, 30도루로 활약했다.

김혜성은 지난 시즌 시작을 앞두고 키움 구단으로부터 포스팅을 통한 빅리그 도전을 허락받았고, 시즌 중에는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에이전트사인 CAA와 계약했다.

결국 김혜성은 에이전트 소속사에서 한솔밥을 먹는 오타니의 소속팀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

지난달 5일 MLB 사무국은 김혜성을 포스팅 공시했고, 지난 4일 오전 7시(한국시간)가 협상 마감시간이었다.



지난해 3월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팀 코리아와 LA다저스의 MLB 서울시리즈 연습 경기에서 팀 코리아 김혜성이 2루타를 친 뒤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BO리그 출신 선수가 포스팅을 통해 MLB 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건 김혜성이 역대 9번째다.

야수만 따지면 강정호(2014년·피츠버그 파이리츠), 박병호(2015년·미네소타 트윈스), 김하성(2020년·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이정후(2023년·샌프란시스코 자이

언츠) 이후 김혜성이 5번째이며, 이들은 모두 히어로즈 출신이다.

김혜성은 포스팅 종료를 눈앞에 두고 극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꿈에 그리던 빅리그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김혜성은 조만간 미국으로 건너가 신체검사를 받고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현, 인도네시아 퓨처스 테니스 우승

5년 5개월만 국제대회 '정상'

정현(1104위)이 국제테니스연맹(ITF) 암만 미네랄 대회(총상금 3만달러) 단식 정상에 올랐다.

정현은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자일스 핫세(421위·영국)를 2-0(6-1, 6-2)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정현은 2019년 8월 남자 프로테니스(ATP) 청두 인터내셔널 챔피언 이후 5년 5개월 만에 국제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2018년 호주오픈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단식 4강에 진출했던 정현은 이후 부상이 이어지며 내리막을 걸었다.

2023년 6월 왼발던 예선 2회전 탈락 이후 부상 때문에 1년 이상 경기에 나오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일

본 퓨처스 대회로 복귀전을 치렀다.

성인 남자 테니스 국제 대회는 크게 4대 메이저 대회와 ATP 투어, ATP 챌린저, ITF 퓨처스 순으로 등급이 나뉜다. 정현이 이번에 우승한 대회는 가장 낮은 등급인 퓨처스에 해당한다.

단식 기준으로 챌린저에서 9번 우승했으며 퓨처스에서는 이번 대회까지 5차례 우승을 달성했다.

정현은 이번 대회에서 톱 시드를 받은 앙투안 에스코피에(207위·프랑스)를 2-0(6-2, 6-2)으로 완파하는 등 재기 가능성을 보였다.

이번 우승으로 정현은 세계 랭킹 700위 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 더 랭킹 포인트를 쌓으면 주로 100~300위 선수들이 본선에 뛰는 챌린저 무대에도 자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전력강화' 제주Utd, 수비수 최원창 영입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가 K3리그 화성시민축구단에서 활약한 수비수 최원창(23·사진)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 대건고 출신으로 2020년 고교 졸업과 함께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최원창은 K리그1 무대에서 2021시즌 1경기 출전 기록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2022년 K3리그 화성FC로 이적한 최원창은 시흥시민축구단과 춘천시민축구단을 거쳐 지난해 다시 시흥시민축구단 유니폼을



입고 K3리그 우승을 맛봤다.

K3리그에서 보여준 활약을 앞세워 K리그1 복귀에 성공한 최원창은

후방 빌드업을 통해 상대 압박을 풀아가는 김학범 감독의 축구 철학에 부합되는 선수라는 게 제주 구단의 설명이다.

이성화 제주패러글라이딩협회장 당선

제3대 제주특별자치도 패러글라이딩협회장에 이성화(61·사진) 제주 사랑 패러글라이딩대표가 당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패러글라이딩협회는 지난달 28일 회장 선거를 실시, 단독 입후보한 이성화 후보를 선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성화 당선인은 "연간 12만명이 체험하고 어린이부터 80세 고령까지 나이와 상관없는 대중적인 레포츠인 패러글라이딩이 도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무료 강습회와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는 금요일 금오름과 함덕 서우봉 2곳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강풍으로 인해 연간 120일 정도만 비행이 가능하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얼음판 위의 여왕 5일 경기도 의정부빙상장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5 전국 남녀 종합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김채연이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 이날 김채연은 여자 싱글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여자농구 BNK, 하나은행에 26점 차 대승 김소니아 13득점·11리바운드 '맹활약'

여자프로농구 선두 부산 BNK가 더블 더블을 올린 김소니아를 앞세워 부천 하나은행에 대승을 거뒀다.

BNK는 5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하나은행 2024-2025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하나은행에 67-41로 크게 이겼다.

직전 청주 KB와 경기 10점 차 패배의 아픔을 곧바로 씻어낸 BNK는 선두(13승 4패) 자리를 굳게 지켰다.

공동 2위인 2위(10승 6패) 아산 우리은행, 용인 삼성생명과의 격차를 2.5경기로 벌렸다.

아울러 하나은행을 상대로 올 시즌 4전 전승 행진을 이어갔다.

5승 12패의 하나은행은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BNK는 이소희(12점)와 김소니아(11점), 이지마 사키(10점·이상 전반 득점)가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포를 가동하며 하나은행 진영을 맹폭했다.

성큼성큼 달아난 BNK는 39-15, 더블 스코어로 앞선 채 하프타임을 맞이했고, BNK 우위의 흐름은 후반에도 이어졌다.

김소니아가 13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작성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13점씩을 올린 이소희와 이지마가 뒤를 받쳤다. 연합뉴스

수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양석진
축산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수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양석진
축산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카일동

취임
제주교육대학교 총동창회장

백철호
제28대 제주교육대학교 총동창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친구
오병훈 전 원주대 교수
오평석 전 부산대 교수
조병욱 전 부산대 교수
진용은 KG패스원 원장

선정
신지식농업인후(축산/한우부문)

고성영
신지식농업인(축산/한우부문)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농업마이스터협회 제주도회
회장 김희찬 사무국장 문호진
현성익 김종우 박광일 장행관 강찬관 김철민 김길홍
홍행표 허철 김명수 강은수 김범준 양인혁